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개원 36주년 “고용노동교육 2.0으로 새로운 도약”

- 1990년 한국노동교육원 출범 이후 36년간 노동교육의 중심 역할
-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대응, ‘전 생애 노동교육 허브기관’으로 도약 다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은 10월 22일(목) 교육원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36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1990년 한국노동교육원 출범 이후 이어온 노동교육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고용노동교육 2.0’ 비전 실현을 통해 미래 노동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원의 출발점은 1990년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이다. 1987년 이후 노사분규가 급증하던 시기에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대화와 협력의 노사관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2009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 ‘노동행정연수원’, 2011년 ‘고용노동연수원’을 거쳐, 2020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에 따라 독립 공공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재출범했다. 지난 36년간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춰 교육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고용·노동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주도해 왔다.

이종선 원장 취임 이후 교육원은 ‘고용노동교육 2.0’ 실현을 위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고용노동교육 2.0 TF’를 구성해 교육원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전국 8개 지역노동교육협의체를 운영해 지역별 노동교육 수요를 발굴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일터·지역 사회의 노동교육 자원을 연계하고, 청소년부터 재직자, 퇴직자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노동교육이 지속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교육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3년 만에 ‘노사관계전문가과정’을 재개했으며, ‘생애주기별 노동교육 전문가’ 100명 양성도 추진 중이다. 취약·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역거점 노동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교육 대상과 전달체계를 넓혀 국민 누구나 필요한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교육원은 지난 36년간 고용·노동 현장의 변화에 맞춰 역할을 넓혀 왔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교육 2.0’을 통해 교육원의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노동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교육기관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경영지원팀	책임자	팀 장	박혜운	(031-760-7860)
		담당자	연구원	주희란	(031-760-7868)

